

한국의 그래미를 꿈꾸다

제3회 한국대중음악상

조원희 · 대중문화평론가

권위 있고 공정성 강한 차트의 부재, 권위 있는 대중음악상의 부재는 한국 대중음악이 힘없이 불황의 늪을 헤매고 있는 것과 다분히 관련 있는 기제다. 한국대중음악상은 소위 '권위 있는 시상식'이 되겠다는 거창한 포부를 지니고 만들어진 상은 아니다. 한 해의 대중음악을 '공익적으로' 결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이다. 단순히 그 아티스트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고 좋은 음악으로 승부했는지를 심사했다. 뿐만 아니라 대중에 알려질 기회가 적었지만 뛰어난 대중음악을 선보인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활동 역시 역점에 두었다.

아티스트의 인기 아니 '작품'에 상주는 '한국대중음악상'

한국의 대중음악과 관련된 시상은 그 수가 적지 않은 편이다. 각 지면 언론사들이 해마다 발표하는 소위 '가요상'들과 방송 매체 3사가 시상하는 '가요대상'들과 '연말 가요제' 등이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대중음악에 대한 시상들이다. 하지만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해마다 상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그만큼 권위 있고 신빙성 있는 시상은 매우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권위 있고 공정성 강한 차트의 부재, 권위 있는 대중음악상의 부재는 한국 대중음악이 힘없이 불황의 늪을 헤매고 있는 것과 다분히 관련 있는 기제다. 잡지 빌보드의 월드차트에 '한국 차트'가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아 필수적으로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한국 대중음악인들에게 장애요소가 될 뿐이다.

사실 방송사나 언론사의 연말 대중음악상들은 대상자들이 해당 방송사나 언론사에 얼마나 많은 협조를 했는가에 대한 공적의 가산점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다. 혹은 비협조적으로 나온 아티스트를 배제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아티스트의 음악성이나 발전 가능성보다는 즉물적인 인기에만 의존한 시상이 많다. 때로는 뮤지션으로서의 활동보다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나 짝짓기 프로그램에 등장해 만들어낸 인기 때문에 열심히 라이브 무대만을 지킨 뮤지션들을 제치고 수상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대중음악가'들에 대한 시상이 아니라 '대중음악이라는 필드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에 대한 시상이라는 증거다. 이런 기존 대중음악상의 한계를 극복한 대중음악상이 이제 세 번째 시상식을 앞두고 있다. 바로 '한국대중음악상'이다.

한국대중음악상은 소위 '권위 있는 시상식'이 되겠다는 거창한 포부를 지니고 만들어진 상은 아니다. 한국대중음악상을 만드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문화연대는 방송사나 언론사 주최의 상들이 '공익성'보다는 자사의 이윤추구의 일환이나 자사의 취재협조를 위한 하나의 '선물'로 전략한 것을

리뷰 | 대중문화

지적하며 한 해의 대중음악을 ‘공익적으로’ 결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이다. 단순히 그 아티스트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고 좋은 음악으로 승부했나를 심사했다. 뿐만 아니라 대중에 알려질 기회가 적었지만 뛰어난 대중음악을 선보인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활동 역시 역점에 두었다. 대중음악평론가, 방송사의 음악프로그램 PD, 그리고 매체의 음악담당 기자들이 무급으로 선정위원이 되어 전문적인 심사를 맡았다. 단순히 ‘가수’에게 상을 시상하는 기존의 대중음악상들과 차별되는 첫 번째 요소는 최고상이 바로 ‘올해의 앨범’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 ‘아티스트의 인기’에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티스트의 작품’에 상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2004년 시상한 제1회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의 앨범’은 예전 모던록 싱어 박혜경이 보컬을 맡았던 밴드 더더의 네 번째 앨범이었다. 큰 인기를 얻은 앨범은 아니었지만 그 참신성과 완성도에 표를 던진 선정위원들이 많았던 것이다. ‘올해의 노래’는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올해의 남자가수’는 휘성이 차지했고 ‘올해의 여자가수’는 이상은이 차지했다. 이런 시상결과를 보고 일부 언론은 “비도 효리도 찾아볼 수 없는” 기묘한 대중음악상이라고 지적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한국 대중음악 엔터테이너상’이 아닌 ‘한국대중음악상’을 낱설어한 보수적 매체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2005년 시상한 제2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언더그라운드 밴드 마이앤티메리의 음반 『Just Pop』이 쟁쟁한 엔터테이너들을 제치고 ‘올해의 앨범’을 수상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대중음악상은 ‘언더그라운드 뮤직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올해의 노래’로는 ZPD와 인순이가 듀엣으로 불러 큰 히트를 기록했던 『친구여』가 차지했고 ‘올해의 남자가수’는 인기를 되찾은 노장 이승철이 차지했다. 여성 주류 아티스트로 오랫동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대중적인 아티스트 이소라가 ‘올해의 여자가수’ 상을 수상했고 2004년 한 해 동안 가장 큰 인기를 얻었던 신인 그룹 클래지콰이가 ‘올해의 그룹’ 상을 수상한 것 역시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어쨌든 기 시상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 대중음악상은 정확한 한국 대중음악의 지형도를 그리기 위해 노력한 상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005년, 대중음악 필드를 다시 그리다

200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표된 음반을 대상으로 하는 제3회 한국대중음악상(제4회부터는 전년 11월 1일부터 당해 10월 31일까지 1년간 발표된 음반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은 20여 명 규모였던 선정위원의 수를 31명으로 확대했고 학계, 대중음악평론가, 매체 음악담당기자, 음악방송 PD, 시민단체 관계자 등 대중음악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했다. 지난 2월 14일, 총 23개 부문에 대해 시상하는 제3회 한국대중음악상의 후보가 발표됐다. 후보가 된 뮤지션들과 음반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2005년 한 해 동안의 대중음악 필드가 그려질 정도다. 방송 음악 전문 연주 그룹으로 시작해 재즈와 크로스오버라는 장르에서 실력자로 올라선 ‘두 번째 달’의 앨범을 비롯해 한국 대중음악의 거목 신중현의 2남과 3남이 주축이 된 밴드 서울전자음악단의 데뷔 앨범, 그리고 데뷔 이후 한국 대중음악의 중요한 남성 뮤지션으로 위치를 지켜온 조규찬의 앨범 『Guitology』, 일렉트로닉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킨 W의 『Where The Story Ends』 등이 ‘올해의 앨범’ 후보로 선정됐다. 언더그라운드 밴드로부터 주류 아티스트들까지 골고루 포진해 있는 후보군을 살펴보면 실력과 완성도를 첫 번째로 놓고 그 인기는 두 번째로 고려하는 한국대중음악상 특유의 심사기준을 읽을 수 있다. 그 해 가장 많은 이들에게 들려졌던 노래가 아니라 가장 사랑받았으며 가장 뛰어난 노래를 고르는 작업인 ‘올해의 노래’는 힙합 그룹 리쌍의 『내가 웃는게 아니야』, 거의 국민가수급의 히트를 기록했던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지난해 가장 많은 음반 판매와 에어플레이를 기록했던 SG워너비의 『살다가』 등의 노래들과 함께 ‘노래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민중가요 계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영

석의 「코리안드림」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진풍경을 만날 수도 있다. 뮤직비디오 표절 시비를 낳았던 드렁큰타이거의 「소외된 모두, 왼발을 앞으로」가 역시 후보로 포함된 것은 뮤직비디오와 같은 '노래 외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이 상의 성격이 읽혀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쟁쟁한 실력 보유한 장르분야 후보군

한국대중음악상의 분야들 중 대중들에게 더욱 각광받을 부분인 '장르분야'의 후보군을 살펴보면 2005년 한국대중음악의 지형도가 더욱 쉽게 그려진다. 올해부터 새로워진 부분은 바로 장르분야에서 앨범과 싱글부문으로 나뉜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엔 영미권의 싱글 음반의 형태가 대중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에서의 싱글은 '단일곡'을 편의상 지칭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앞으로 앨범보다는 디지털 싱글처럼 곡 단위의 음반 발표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는 차원이기도 했다. 그러나 싱글이라는 명칭에 많은 의미 부여는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올해 모던록 분야의 특징은 일단 한국 대중음악의 지형도에 있어 새로운 경향들이 각광받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음이다. 몽구스, 미스티 블루,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 등은 비교적 신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데뷔앨범, 혹은 두 번째 앨범들을 발표한 새로운 밴드들이다. 모던록 장르에서 심사위원들이 주목한 또 하나의 경향은 기존 밴드의 새로운 시도들이다. 서울전자음악단, 오메가 3, 줄리아하트는 모두 이전에 유명 밴드에 소속돼 있었던 뮤지션들이 새로 만든 그룹들이다. 모던록 장르가 한국 대중음악의 지형도 안에서 새롭고 신선한 것에 목마른 이들에게는 샘과 같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우수 록 부문의 특징으로는 기존 밴드와 신진 밴드들의 조화로운 지형도를 찾아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 정통록, 헤비메탈의 생존자라고 표현할만한 그룹 블랙홀을 비롯해 1990년대 홍대 앞 언더그라운드 부흥 이후로 삼청교육대나 프리다칼로, 그리고 정상적인 음반 유통을 타지도 못한

채 민중음악을 지키고 있는 연영석을 무시하지 않고 계속적인 발굴 차원에서 후보로 발탁한 부분을 주목할 만하다. 앨범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지 못한 나비효과와 렉스의 싱글이 싱글 부문에 뽑혀있는 것 역시 눈여겨볼 부분이다. 참고로 후보로 선정된 렉스의 노래는 TV 노출사고와는 하등 관련이 없는 다른 노래다. 여기서 한국대중음악상의 편견 없는 후보 선정기준이 드러난다.

가장 대중적인 아이템인 최우수 팝부문은 앨범 부문과 싱글 부문에서 주류 음악과 비주류의 조화가 돋보인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오랜만에 양질의 앨범을 발표한 윤종신의 음반과 언더그라운드에서 명징한 리리시즘으로 각광받은 재주소년이 함께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은 일렉트로닉 W의 「쇼킹 핑크 로즈」와 조규찬의 「잠이 늘었어」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지난 해 저조한 음반시장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친밀도가 가장 높은 팝 부문의 경쟁이 치열한 점은 특히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힙합 부문에서는 만만치 않은 내공과 대중성까지 충분히 겸비하고 있다는 중론을 받는 리쌍, 다이나믹 듀오 그리고 에픽 하이의 신보들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발매되어 특히 공중파 쪽에서 폭 넓은 사랑을 받아 후보로 선정됐다.

그런 반면에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진통 끝에 2인조로 팀을 개편한 가리온도 싱글 앨범 『무투』의 타이틀 트랙으로 진일보한 음악 세계를 펼쳐 마니아 층 뿐 아니라 힙합을 즐겨 듣지 않던 타 장르 음악 팬들까지 포섭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 선정되었다. 무브먼트라는 이름으로 통칭되는 힙합 패밀리를 이끌며 세를 과시하고 있는 드렁큰 타이거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솔로로 활동하게 된 후 도리어 이전보다 팬 층이 확장되는 이변을 기록했다. 특히 「소외된 모두...」의 경우 뮤직비디오의 표절 혐의와는 별개로 곡 자체로도 러브콜이 만만치 않아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우수 알앤비 소울 부문에서는 소위 기존 '여성 디바들'의 음반이 일단 탈락하고 BMK만이 버티고 있는 모습이 특

리뷰 | 대중문화

한국대중음악상의 분야들 중 대중들에게 더욱 각광받을 부분인 '장르분야'의 후보군을 살펴보면 2005년 한국대중음악의 지형도가 더욱 쉽게 그려진다. 올해부터 새로워진 부분은 바로 장르분야에서 앨범과 싱글부문으로 나뉜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엔 영미권의 싱글 음반의 형태가 대중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에서의 싱글은 '단일곡'을 편의상 자칭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앞으로 앨범보다는 디지털 싱글처럼 곡 단위의 음반 발표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는 차원이기도 했다. 그러니 싱글이라는 명칭에 많은 의미부여는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올해의 앨범



징적이다. 정연준이 주도한 솔로우 잼 프로젝트가 소리 소문 없이 깊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고, 박마마의 경우는 음반 완성도에 비해 싱글 완성도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보인다.

심사 위원들 간에 가장 큰 격론을 야기시킨 것은 나얼의 솔로 음반에 과연 자격이 충분한가의 문제였다. 2005년에 만연되었던 소모적인 리메이크 열풍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사명감과 위기의식이 이 음반을 후보에서 제외시키자는 의견을 낳기도 했지만 분과 위원들이 "상대 평가임을 고려할 때 그럼에도 좋은 음반이었다"는 지지 선언을 함으로써 살아남게 되었다고 한다. 어쨌든 이 음반과 수록곡을 제외하고는 리메이크 음반과 리메이크곡이 단 한곡도 노미네이트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대중음악상이 2005년 만연한 철학 없는 리메이크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증거자료로 보인다.

영화드라마음악 부문을 살펴보자면 언제나 그랬듯이 좋은 영화음악, 좋은 드라마음악은 오로지 음악만으로는 홀로 설 수 없고 좋은 작품과 함께 있을 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의 영화드라마음악은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의 OST 음반들이 줄을 잇고 있다. 정상급 뮤직 슈퍼바이저 조영욱의 『친절한 금자씨』와 한국 영화음악계의 거목으로 성장한 이병우의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이 버티고 서 있는 가운데 『웰컴 투 동막골』의 히사이시 조가 한국 대중음악상 사상 최초의 일본인 후보로 선정됐고 지난해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의 OST가 드라마 음악으로는 유일하게 후보가 된 것 역시 주목할만한 점이다.

'권위있는 상'은 '권위있는 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로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공정하고 공익성 강한 대중음악상을 시상하다 보면 권위는 저절로 획득될 것이며 '한국의 그레미' 역시 꿈은 아닐 것이다. 2006년 3월 14일 7시, 영예로운 수상자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대중음악상후보

종 합 분 야

올해의 앨범

두번째 달 [두번째 달]
몽구스 [Dancing Zoo]
서울전자음악단 [서울전자음악단]
원디시티 [Love Record: Love, Power And Unity]
조규찬 [Guitarology]
W [Where The Story Ends]

올해의 노래

드렁큰타이거 '소외된 모두, 원발을 앞으로'
루시드 폴 '오, 사랑'
리쌍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서울전자음악단 '꿈에 들어와'
연영석 '코리안드림'
윤도현 '사랑했나봐'
SG워너비 '실다가'

올해의 가수(남)

나얼 [Back To The Soul Flight]
루시드 폴 [오, 사랑]
연영석 [숨]
윤도현 [Difference]
윤종신 [Behind The Smile]
조규찬 [Guitarology]

올해의 가수(여)

이상은 [Romantopia]
이선희 [사춘기]
임정희 [Music Is My Life]
장윤정 [2nd Album]
BMK [Soul Food]

올해의 가수(그룹)

두 번째 달 [두 번째 달]
몽구스 [Dancing Zoo]
서울전자음악단 [서울전자음악단]
원디시티 [Love Record: Love, Power And Unity]
W [Where The Story Ends]

올해의 신인

13steps [This Is The Reality That We Confront]
두 번째 달 [두 번째 달]
미스티블루 [너의 별 이름은 사리우스 B]
소규모아카시아밴드 [소규모아카시아밴드]
임정희 [Music Is My Life]
허밍어반스테레오 [Very Very Nice! And Short Cake]

올해의 연주

곽윤찬 [Noomas]
두 번째 달 [두 번째 달]
오메가3 [Alpha beat]
원디시티 [Love Record: Love, Power And Unity]
이루마 [Destiny of Love]
Trilogue [Speak Low]

장 르 분 야

최우수 모던락 앨범

몽구스 [Dancing Zoo]
미스티블루 [너의 별 이름은 사리우스 B]
서울전자음악단 [서울전자음악단]
소규모아카시아밴드 [소규모아카시아밴드]
오메가3 [Alpha Beat]
줄리아 하트 [영원의 단면]

최우수 모던락 싱글

몽구스 '나뭇가루 립스틱'
몽구스 '춤추는 동물원'
미스티블루 '푸른 그림자'
서울전자음악단 '꿈에 들어와'
소규모아카시아밴드 'So Goodbye'
오메가3 '세익크로바'

리뷰 | 대중문화

최우수 록 앨범 13steps [This Is The Reality That We Confront] 문사인 [Songs Of Requiem] 블랙홀 [Hero] 삼청교육대 [남도] 연영석 [숨] 프리다칼로 [Frida]	최우수 록 싱글 나비효과 'Shoot The Chicks' 럭스 'Walk Along' 블랙홀 '삼' 삼청교육대 '역발산 기계세' 연영석 '코리안드림' 프리다칼로 '바람의 노래'	올해의 영화·드라마음악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내이름은 김삼순 달콤한 인생 오로라 공주 웰컴 투 동막골 친절한 금자씨
최우수 팝 앨범 루시드 폴 [오, 사랑] 윤종신 [Behind The Smile] 재주소녀 [Peace] 조규찬 [Guitarology] 허밍어반스테레오[Very Very Nice! & Short Cake] W [Where The Story Ends]	최우수 팝 싱글 루시드폴 '오, 사랑' 윤도현 '사랑했나봐' 윤종신 '너에게 간다' 조규찬 '잠이 있었어' SG워너비 '실다가' W 'Shocking Pink Rose'	올해의 레이블 노란잠수함 비트볼뮤직 서울음반 파스텔뮤직 풀로엮은집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앨범 곽윤찬 [Noomas Emi Blue Note] 두 번째 달 [두 번째 달] 이루마 [Destiny Of Love] 찬채광원경 [하늘을 보며] Jack Lee [Asian Ergy] Trilogue [Speak Low]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싱글 곽윤찬 'Noomas' 두 번째 달 'The boy from Wonderland' 두 번째 달 '서쪽하늘에' Trilogue 'Speak Low' Trilogue 'It Rains'	공로상(확정) 조용필
최우수 힙합 앨범 다이나믹듀오 [Double Dynamite] 드림크타이거 [1945, 해방] 리쌍 [Library Of Soul] 부가킹즈 [The Renaissance] 에픽하이 [Swan Song]	최우수 힙합 싱글 가리온 '무투(武鬪)' 다이나믹듀오 'Go back' 드림크타이거 '소외된 모두, 완발을 한보 앞으로' 리쌍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에픽하이 'Fly'	
최우수 일앤비&소울 앨범 나얼 [Back To The Soul Figh] 슬로우 잼 [Midnight Love] 원디시티 [Love Record : Love, Power And Unity] BMK [Soul Food] Soulciety [2 Colors]	최우수 일앤비&소울 싱글 나얼 '귀로' 부가킹즈 'Tic Tac Toe' 빅마마 '소리' 슬로우 잼 '다가와' 원디시티 'Love Supreme'	

올해의 노래

